

청년 이슈 포럼  
슬기로운청년생활

결혼과

비혼 사이

2018.7.30. (월) 19:30

100주년 사회봉사관 지하2층

# 순서 및 목차

## 1. 인사

/ 김현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팀장

## 2. 한국 사회 비혼 동향과 정책 현황 : “너의 비혼을 사(赦)하노라”

/ 신하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 - - - - 3쪽

## 3. 교회에서 비혼을 말한다는 것

/ 폴 짝 (믿는페미 활동가) - - - - - 12쪽

## 4. 종합 토론

/ 다함께

---

**발행일** | 2018년 7월 30일

**발행인** | 백종국

**편집인** | 정병오

**편집** | 김현아

**발행처**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401호(세대빌딩)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홈페이지 cemk.org 이메일 cemk@hanmail.net



# 한국 사회 비혼 동향과 정책 현황 :

## “너의 비혼을 사(赦)하노라”

신하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 들어가며 : 한국의 청년들, 교회의 청년들

본 포럼은 결혼과 비혼 사이의 교회 청년을 조명하는 자리이다. 사실 이 자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보편적 한국 교회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혁명적이다. 한국 교회 청년들에게 ‘비혼’은 홍길동의 호형호제 같은 느낌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비혼을 말하고, 나도 비혼의 현실 속에 있는데, 정작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보다 우리에게 친숙한 ‘공동체’라는 단어로 치환될 수 있을 것이다.)에서는 말할 수 없는 ‘승한 단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비혼을 비혼이라 하지 못하고, 결혼하지 않은 자신을 드러내지 못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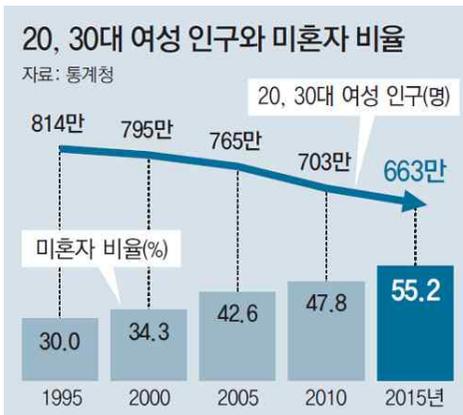
결혼하지 않은 한국 교회 청년의 현주소, 그들의 정체성은 오늘날 한국 사회 청년들을 말하는 소위 N포 세대와 같다. N포 세대는 기존의 3포 세대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3포 세대란, 청년 실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들을 일컫는 용어이다. 3포 세대가 처음 회자되던 2010년대 초기를 지나오며 이제는 내 집 마련, 인간관계를 포기한 ‘5포 세대’, 여기에 꿈, 희망까지 포기한 ‘7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조선일보, 2015.4.3. 기사). 무엇이 청년들에게 당연히 있으리라 생각한 일곱 가지를 포기하게 만들었을까. 사실 청년들의 포기는 그 비자발성으로 인해 ‘포기’보다는 ‘박탈’이 적합한 단어일 듯하다.



〈그림 2〉 2030세대가 포기하게 된 7가지 항목들에 대한 조사표와 성별차이. 2015년 조사 시점 이후 청년들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청년들이 포기한 것들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결혼이다. 7포 안에 포함된 결혼, 출산, 연애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크게 보면 ‘내 집 마련’도 결혼과 관련된 항목 중 하나이다. 청년 중 38.6%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이들 중 남성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33.2%가 포기하겠다고 답한 출산에 대해서는 여성이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수치는 결혼을 대하는 남성의 부담과, 출산을 대하는 여성의 부담을 대변한다. 곧 남성들은 결혼에 드는 재정적 부담, 여성들은 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인생의 의사결정 폭이 좁아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5월 일어난 ‘강남역 살인사건’을 기폭제로 해서 그간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던 성차별과 여성혐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여성 폭력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최근 1-2년간 여성들은 은연중에 느껴왔으나 표현하지 못했던 다양한 성차별과 억압에 대한 언어를 찾고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여성이 느끼는 많은 차별과 기회의 단절이 결혼이라는 제도로의 진입, 생애사적 사건을 기점으로 한다는 데 봉착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20-30대 여성 중 절반이 결혼하지 않는 현실이다. 20-30대 한국 여성 663만 명 중 55.2%가 ‘결혼하지 않음’의 상태에 놓인 현실은, 일제 강점기 한반도 인구주택 총조사 이후 최저치라고 한다. 이는 사실상 유사 이래 최저 수준에 놓인 비혼 여성의 수치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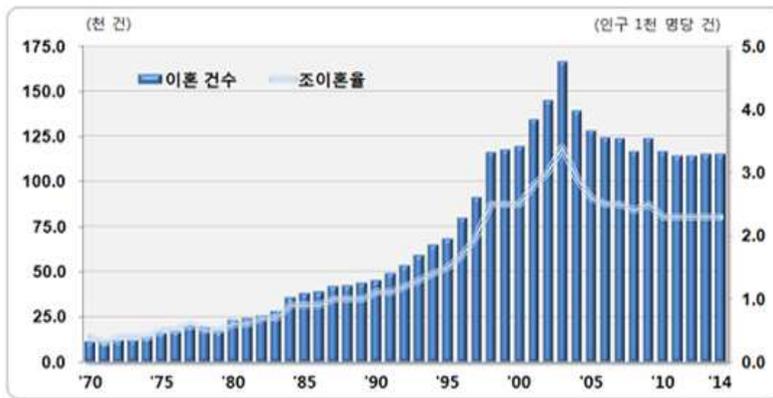
〈그림 3〉 “한국의 20-30대 여성 2명 중 1명은 결혼하지 않는다.”는 현황을 보여주는 통계표 조사결과. 사실상 유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결혼을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면서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즉, 실질적으로 결혼을 원하지 않는 여성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여성들의 결혼 기피현상의 원인은 첫째, 결혼과 출산 이후 경력단절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 그리고 임신, 출산, 양육의 모든 부담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이미 알아버린 이상 ‘예측 가능한 불행’을 피하려고 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 때문이다. 사실상 이 두 가

지 원인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가사노동과 육아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지원을 받지 않는 한 여성들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경력개발을 꾸준히 하거나 일가족(가정)이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사노동이 여성에게 부과되는 것은 가부장제 관습이 남아있는 사회문화적 구조 때문이다. 그리고 임신·출산·양육의 생애사건을 겪은 여성을 채용하지 않거나 이들이 지속적으로 일하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은 생계 부양자 정상인 성인 남성과 여성 노동자 간 격차와 분리를 전제로 한, 이중노동시장이라는 노동 경제적 구조이다.

청년들의 비혼을 말할 때는 미혼(未婚) 뿐 아니라 이혼(離婚) 역시 빼놓을 수 없다.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중 최고 수치의 이혼율을 보인다. 이혼율 자체보다 더 중요한 ‘혼인의 안정성’ 혹은 ‘결혼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방증하는 것이 바로 조이혼율, 즉 4년 이하 이혼율이다. 20년 전에는 혼인지속기간이 길수록 이혼이 감소했지만 2017년 혼인지속기간 구성 비율은 20년 이상과 4년 이하가 전체의 53.6%를 차지했다. 즉 결혼 자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혼율이 낮아지는 착시효과가 있긴 하지만, 드물게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생활이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혼 건수 및 조이혼율 추이



<자료출처 : 통계청 2014 혼인 이혼 통계>

〈그림 4〉 OECD에서 조이혼율 추이가 점점 높아지는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는 이혼한 여성과 남성을 찾아보기 매우 힘들다. 한국 사회 내에 이혼 인구가 200백만 명을 넘긴지가 오래인데, 아직도 교회 내에서 이혼 경험을 가진 성인 남녀는 비가시화 되어 있다. 실패한 결혼에 대한 정죄는 성경적이라기보다는 가부장제에 가까운 도덕적 흠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내에는 그대로 평판의 기제로 들어와 있다.

## 결혼하지 않는 청년, 우리가 듣는 정죄의 말들

이제 한국 교회 청년들을 보자. 우선 교회 내 청년층 분류 기준은 작금의 한국 사회 현실에 비추어봤을 때 엄청나게 시대착오적이다. 소위 ‘학생회’라고 부르는 청소년기 교회학교를 거치고 나면 예외 없이 교회 내 청년들은 ‘청년부’라는 일종의 유예기간에 돌입한다. 청년부를 가끔 ‘대학부’라고 부르는 교회도 있다. 아무리 전 국민 대학진학률이 78%에 육박한다고 해도 매우 무성의한 작명이다. 이 청년부의 시기는 개인이 결혼을 통해서 장년부로 ‘탈출’ 혹은 ‘진급’하기 전까지는 무한정 계속된다. 결국 ‘성인이되 결혼하지 않은 나머지 모든 사람’이 속한 군집이 청년부가 되는 것이다. 교회의 규모가 크다면 이들은 다행히 대학부와 직장을 다니는 청년으로 나름의 사회적 경험에 따라서 교집합을 찾아 묶이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는 모두 장년부로 가기 전의 일종의 모라토리움<sup>1)</sup> 상태에 머문다.

결혼하지 않는 한국 교회 내 청년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그야말로 불편한 말과 고된 노동의 연속이다. 교회 내 청년들, 특히 중장년층 ‘전도회 분들’의 기준에서 결혼적령기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나이의 청년들은 모두 다음과 같은 공훈과 중보의 언사를 마주한다. 대부분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성차별적이거나 상대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상호 간에 삼가는 언사들이다. 특히 교회 내 청년 여성의 경우 그 정도는 더 심하다.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도, 공훈의 언어들</li> <li>- 널 위해 기도할게</li> <li>- 중보기도할게</li> <li>- 예비하신 배우자가 있을꺼야</li> <li>- 배우자 기도는 하고 있니?</li> <li>- 너 혹시 비혼이나 그런 나쁜 생각하는 것 아니지?</li> <li>- 요즘 애들은 결혼 안하고 그런다던데 우리 청년들은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서는 안됩니다!</li> <li>- 어서 결혼해서 교회에 큰일을 감당해야 한다</li> <li>- 교인이 줄어든다. 결혼해서 자연전도에 힘써라</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를 정죄하는 언어들</li> <li>- 너는 기도가 필요한(부족한) 상태야</li> <li>-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이 모자란 것</li> <li>- 예비하신(있다면) 배우자를 내가 거부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li> <li>- 너가 결혼하지 않은(못한) 것은 너의 기도의 부족이다(네 탓이다)</li> <li>- 너의 출산은 교세를 확장하기 위한 수단이다(너 역시도 그렇다)</li> <li>- 결혼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잉여인력/잉여 청년이다</li> <li>-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헌신은 불완전하다</li> </ul> |
|---|---|---|

<그림 5> 결혼하지 않는 청년, 우리가 듣는 공훈과 중보의 말들은 사실 걱정의 탈을 쓴 정죄와 타박의 잔소리일 때가 많다. 타인의 다른 삶에 대한 상상력을 갖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몰이해의 폭력적 언사가 많다.

1) moratorium, 유예기간 혹은 어떤 활동이나 어떤 과정의 정지 기간

고된 노동은 또 어떠한가. 청년들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계경제를 책임지거나 육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 여유가 있는 존재로 취급된다. 각종 교사, 교회 관리, 반주, 찬양팀 봉사 등에 동원되기 일쑤이다. 밖에서 시간제근무 알바를 해서 용돈을 벌거나 학비를 벌어야 하는 청년들도 교회에서는 시급이나 일당 없이 종종걸음으로 교육부로, 찬양부로……. 오늘도 뛰어다닌다. 그렇게 해도 이들은 교회 내에서 가정 단위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나 주요 활동에 속하지 못한다. 늘 ‘청년부’라는 집단으로 존재하고 ‘수고해주는’ 봉사자와 행동대의 역할을 도맡는다.

이렇듯 막막한 현실에 결혼을 포기할 생각도 하는 청년들을 향해 교회 내 기성세대들이 던지는 결혼과 관련된 물이해의 언어들엔 가히 폭력적이라 할 수 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작금의 한국 사회의 비혼 상황은 젊은이들의 문화라기보다는 젊은이들이 처한 현실이요 사회가 마주한 현상에 가깝다. 폭주족이나 불법 촬영물처럼 근절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할 일이 아니라, 사회 모두가 이 현상이 사라지거나 완화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이다. 다음의 칼럼은 ‘청년에게 꿈이 없다’고 한탄하거나 ‘열정 페이’, ‘그 나 이대의 사서 하는 고생’을 주장하는 일이 얼마나 “뭣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를 대변한다. 요즘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베이비붐 세대, 즉 산업화로 고도성장 시기를 거친 현재 한국 교회 중직자 혹은 중장년층 ‘전도회 어른들’은 현재 한국 청년현실을 모르는 채로, 이해보다는 훈계를 앞세운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선의의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이다. 그렇기에 더욱, 오늘의 한국 교회 청년들에게 외치고 싶다. “청년들이여, 그대들의 비혼이 죄라면-혹은 죄 같이 여겨진다면- 그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이다.

“고용난으로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꿈이 소박해지고 성취에 대한 욕심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자녀가 객관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내지 못할 때, 제대로 그리지도 못하는 꿈을 응원하기보다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부모가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관리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청년과 부모 모두 나이가 먹지만, 청년은 어른 되기에 실패한다.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지방대생들은 수업만 끝나면 집으로 향한다. 쉬는 시간에 집에 가서 쉬고 오는 학생도 적지 않다. 단란한 가정을 꾸려 아이 키우는 자녀를 기대했던 부모는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한국의 취업은 사회문제가이기도 하지만 가족문제가이기도 하다. 입시전쟁에서 취업전쟁으로 주제가 바뀌었을 뿐이다. 고령화도 문제지만, 사회적 역할 없이 30대가 되는 청년이 늘어나는 건 분명 중대한 문제다. 세대문제만도 아니다. 여력이 되는 부모의 보살핌과 내버려두는 부모의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으로 행사되는 영향력 차이도 더 커졌다.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가 그렇다. 경쟁에서 승리해본 경험을 가진 청년들과 나이만 먹으면서 기준점을 찾지 못하는 청년들의 활력 격차는 수십 년 동안 더 커졌다.”<sup>2)</sup>

## 비혼의 정치학, 비혼의 경제학

2007년만 해도 당시 36세 전문직여성이 비혼을 삶의 방식을 선택한 것이 신문지상에 소개되고, 소수자성(minority)을 가진 예외적 존재로 언론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이 시기 한국 사회 역시 가부장제가 극심했고, 여성들의 삶은 억압적이었으며 많은 기업에서 채용 차별과 고용 상 성차별이 일어나고 있었다. 오히려 지금은 육아휴직 강제화, 블라인드 채용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혼이 더 일반적이 되었고, 당시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이제 가까운 친지의 걱정거리가 될지언정 언론에서 개인의 예외성을 다룰 소재가 되지 않는다.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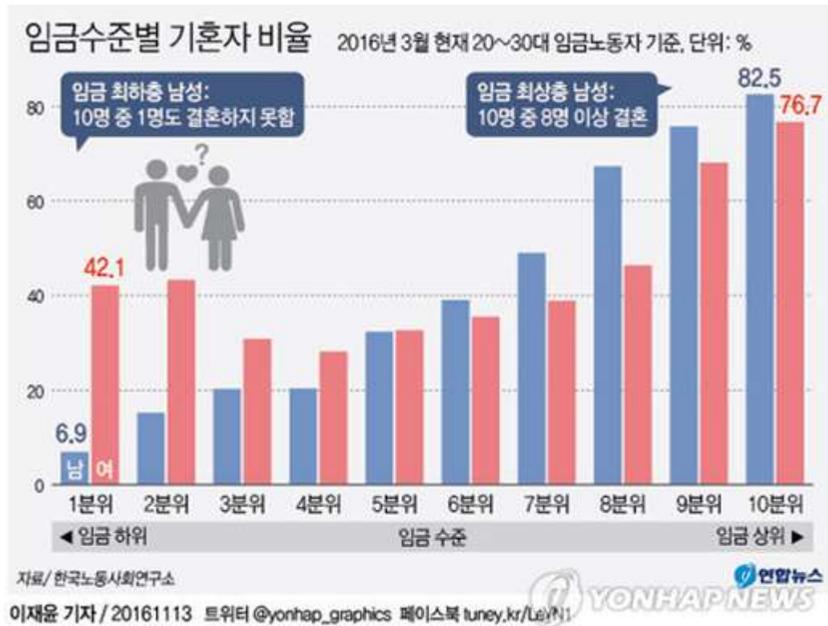
비혼을 선택하게 되는 의사결정 구조는 10년간 진행된 사회적·경제적 요인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만들어낸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갈래기'라 할 수 있다. 유전기혼 무전비혼, 이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고임금, 정규직의 남성과 여성이 모두 결혼 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sup>3)</sup> 2008년 세계 경제 금융 위기 이후 8년간 지속된 기득권 중심의 경제금융 정책, 부동산 정책은 세대의 빈곤화를 부추겼다. 청년들은 당장 눈앞의 직접적인 생존과, 손에 잡히지 않는 후시 있을지도 모르는 연애·결혼의 행복 사이에서 결국 생존을 선택한다. 철이 없어서 비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철이 들고 세상을 너무 잘 알아서 비혼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6〉 불과 10년 전인 2007년만 해도 36세의 ‘미혼’ 여성은 독특한 생활양식으로 주목받고 신문지상에 소개될 정도의 별종, 더 나아가 소수자로 분류되었다.

2) 출처: “[양승훈의 공론공작소] 청년에게 ‘가족 밖 세상’을 허하라” 2018.07.25. 경향신문 사설.

3) 물론 여성의 경우 U자형의 특정한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한국 남성이 생계부양자로서 책무를 지고 여성이 전업주부로 남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에 따른다.



〈그림 6〉 임금수준별 기혼자 비율을 보면, 고임금-정규직 남성의 경우 기혼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여성의 경우는 임금수준과 비례하지 않고 U자 곡선을 보인다.

## 청년 여성: 우리의 ‘자매님들’

특히 한국 사회 여성들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상기한 경제적 선택 제한 뿐 아니라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 상승, 높아진 교육수준, 개선된 성평등 인식 등이 포함된다. 때문에 여성들이 결혼이라는 선택으로 가는 트리구조와 알고리즘에는 더 많은 변수가 놓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청년 여성들은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노처녀’, ‘노산’, ‘시집을 못/안간’ 등의 각종 결혼 압박에 시달린다. 그리고 이들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의사결정에서 제외되어 있다.

너무나 많은 교회 곳곳에 자신의 노동을 무보수로 제공하고, 교세 확장에 기도로 물질로 전도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내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낮다. 교회 내 여성의 수가 많고, 교회 내 문화를 주도하는 이들이 중고령 기혼여성이라고 해도, 이들이 속한 조직의 지배논리를 결정하는 모든 의사결정은 남성-장로와 목사, 감독, 노회장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비민주성, 여성 대표성의 부재는 한국 교회 여성목회자 비율이 모든 교단을 통틀어 평균 10%도 안 된다는 것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림 7〉 한국 교회 남성신도-여성신도 비율과 남성목회자-여성목회자 비율

## 출산하라고 결혼을 권하는 사회

지난 2018년 6월 말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를 통해 초고령화사회, 인구절벽 현상 극복을 위한 다양한 범부처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 대책은 기존의 단순한 일가족양립 강화를 통한 출산장려의 틀에서 벗어난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을 기치로 내걸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가 발표한 주요 정책의 지향점은 ‘삶의 질 개선’이었다. 물론 기존의 정책에 비해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에 포함된 신혼부부와 청년층 대상 주거지원 확대 정책의 경우, 정책의 실 수요층을 제대로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혼 출산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망이 결여 되어 있거나 임금노동을 하지 않는 경우 복지 혜택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여전히 구체적 실행은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다양한 가족의 형태 즉, 조손가족 내 아동, 비혈연 양육자 거주 아동 등 결혼하지 않은 가정의 아이를 책임질 수 없는 ‘정상가족 프레임’을 여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기혼 상태이나 아이를 낳지 않는 이들, 아이를 낳았으나 결혼 제도를 선택하지 않는 이들, 현재 삶의 조건이 나아지지 않는 한 결혼과 출산을 고려할 생각이 없는 이들에게는 이미 태어난 아이에게 집중된 정책, 현재 아이를 낳았거나 낳을 계획이(여유가) 있는 예비 부모에게 집중된 정책의 체감도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다못해 ‘여성이 아이를 덜 낳는다’라며 여성에게 책무를 돌리는 듯한 ‘저출산’에서, 고령화가 가지는 현상에 대한 기술적(descriptive) 용어로 ‘저출생(low-birth rate)’으로 전환하자는 시도 역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례서는 지난 2016년, 여성들 뿐 아니라 상식 있는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대한민국 출산지도’의 수준에서 크게 진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다름과 약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청년, 교회를 꿈꾼다.

한국 사회 청년이 겪는 현실 문제는 교회 내 청년들의 소외와 함께 이중의 고통으로 작용한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간의 치유나 일회성의 감정적 해소가 아니다. 이미 사회에 많은 정서적 치유 콘텐츠가 넘쳐난다. 사실 교회 조직은 평화만큼이나 정치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역동적인 공동체이지 않은가. 때문에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결혼하지 않은(상태 이든 선언이든) 비혼 청년들을 교회가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교회 내에서는 비혼, 페미니즘, 퀴어, 난민 등 조금의 ‘다름’도 허용되지 않는다. 예수가 생전에 보여준 엄청난 전복과 경계 허물기는 지금의 한국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단일성과 정상성에 갇힌 한국 교회에서 비혼이라는 또 하나의 다름은 발붙일 곳이 있을 리 없다.

다음은 한국 교회가 가진 ‘약함에 대한 경멸’이다. 이 경멸과 강함에 대한 동경은 약한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도 맞닿아 있다. 십일조를 통해 부자가 된 록펠러를 숭배하면서 록펠러와 로스차일드 가문의 금융 지배가 긴 세월 동안 세계금융경제를 얼마나 기형적으로 왜곡시켜왔는지, 록펠러의 축재가 이후에 얼마나 많은 거대 자본가들의 본보기가 되었는지는 보통 설교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교회 내에서 비혼 청년은 사회적으로 약한 존재다.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결혼을 종용하는 중고령자들의 의식구조에는 사회적 약한 존재가 되는 청년을 향한 걱정이 분명 존재한다. 결혼을 통해 맺어진 정상가족 위주로 돌아가는 한국 사회에서 비혼 상태로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지 못한 ‘약한 존재’가 되어 교회 청년들이 주저앉을까 걱정되는 것이리라.

또한 청년들은 그런 자신을 인정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전에 청년 개인은 자신의 약함과 다름을 솔직하게 만나야 한다. 1) 결혼이라는 경제적 자원의 투입과 사회적 불안정을 끌어안을 만큼 조건이 되지 못한 약한 자신, 2)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교회 내 의사결정과 공동체 생활에서 소외된 자신의 약함을 직면해야 한다. 또한 1) 결혼을 원하지 않는 자신의 다름, 2)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인정받거나 수용된 다른 또래 내 기혼 청년과 자신이 다름을 마주해야 한다. 청년들은 자기공정의 서사로 이야기하고 사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 안팎의 다름과 약함에 깨어있어야 한다. 예수는 회당에 머물지 않았고, 거리에 나섰고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죄, 상처, 가난과 마주했다. 우리 안의 약자를 인정하고 허락된 존재의 폭을 넓히려면, 사회의 약자를 생각하고 이들을 위해 기꺼이 품어야 할 것이다. 한국 교회 청년들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강함이, 자신의 다름을 인정하는 자유를 가지고 다른 이의 약함과 다름을 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교회에서 비혼을 말한다는 것

폴짝 (믿는페미 활동가)

## 1. 나의 비혼 이야기

골드미스, 독신주의. 초등학교생인 나는 신문에서 발견한 이 단어들에 가슴이 설렸다. 그 때부터 가족들과 친구들은 물론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거예요." "나는 독신주의자예요."라고 선포하며 다녔다. 그리고 매년 돌아오는 반응을 똑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이 꼭 제일 먼저 결혼하더라." 그로부터 10년도 더 지난 지금 "만나고 있는 애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나의 선택에도 여전히 동일한 반응이 돌아온다. 이런 반응에 과거에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꼭 결혼하지 않아서 내 선택을 증명하겠어.'라고 다짐했다면 이제는 "제 나이면 지금 결혼해도 먼저 하는 결혼도, 빨리하는 결혼도 아니죠."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씁쓸하다. 10년, 아니 20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나의 선택은 왜 '선택'이 아니라 어린 날의 치기 혹은 '아직 뭘 모르는' 미성숙함으로 받아들여지는 걸까.

내가 어린 시절 독신을 선택했던 이유는 단순했다. 모두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것은 어딘가 족쇄처럼 느껴졌고,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선택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독신으로 살기를 바랐다. 물론, 지금도 비슷하다. 기본적으로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한 현재의 가족제도에 동의할 수 없어서이고, 가족 정책이 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서로의 원가족에 편입되는 방식이 불편하다. 나와 애인의 관계를 뭐라고 지칭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재의 무언가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스스로가 정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2. 교회에서 비혼을 말할 수 없음

그런데 이런 나의 선택을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존중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현재 나의

대답은 ‘아니요’이다. 나는 아직 교회가 비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를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 교회의 가족주의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교회는 ‘가족’을 중심으로 체제를 유지한다. 한국의 많은 개교회들은 가족 구성원을 기본 단위로 하고 있고, 모든 가족이 한 교회에서 섬기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더 나아가 교회는 성별 이분법에 근거한 성역할을 이상적인 어머니상과 아버지상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기도 한다. 물론 교회의 가족 중심주의는 교회 구성원들의 단합과 교회 조직 운영에 용이할 수 있다. 하지만 교회가 이야기하고 인정하는 ‘가족’의 모습이 ‘여-남의 결합(결혼)’을 통한 핵가족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교회가 가족주의를 넘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갇혀있다고 여겨진다.

교회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단순히 교회가 가족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성인 여자와 남자로 이루어진 부부와 자식이라는 ‘핵가족’이 정상으로 간주되면 그 외의 가족 형태는 비정상이 된다. 이와 같은 정상/비정상의 구도에서 비혼을 포함한 동거 가구, 무자녀 가구, 이혼 및 재혼 가구, 조손 가구, 동성 가구, 장애 가구, 다문화 가구 등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는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를 해체하고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결과적으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부모와 자식, 여자와 남자의 결합만을 ‘정상’이라고 정의함과 동시에,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이들을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비혼을 선택한 이들은 정상가족을 꾸리지 못한 어딘가 문제가 있는 존재로 여겨져 의심과 걱정을 받는 동시에 ‘곧’ 정상가족의 궤도에 편입될 이들로 여겨진다. 이는 어디까지나 결혼이 정상이라는 응시가 반영된 것이며,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전 생애를 걸친 선택이 아니라 스쳐지나가는 ‘일시적인’ 상태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하지만 2016년 서울시의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27.6%이고<sup>4)</sup>, 2010년 24.4%, 2000년 16.3%로<sup>5)</sup> 매년 1인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교회가 지키고자 하는 전통적이 가족관과 비혼에 대한 시선이 사회 구성원들이 삶을 선택하는 방식과는 이질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4) 통계청. (2017). 지역별 고용조사 : 시도별 1인가구. <http://kostat.go.kr/wntsearch/search.jsp>

5) 이성은 (2015). 비혼 여성의 생활세계 분석을 통한 새로운 가족형태의 탐색. 이화젠더법학, 7(2), 73-112.

## 비혼을 포용할 수 없는 교회 구조

위에서 언급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배제하는 가장 큰 방식은 이들이 속해서 활동할 공동체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교회에서 ‘청년부’는 보통 20살 ~ 결혼하기 전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청년의 규모에 따라서 1청년부, 2청년부 등으로 나누어 관리하기도 한다. 청년부에서 보내는 시기는 그 어느 시기보다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섬겨야 한다고 인식되는 동시에 (보편적인) 생애주기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떠나줘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20대 후반, 30대의 자매들은 ‘얼른 결혼해서 청년부를 떠나줘야 다른 동생들도 (시집)가지 않겠느냐’며 추궁을 받기도 하고, 청년부 탈출을 위해 청년부 담당 사역자부터 장로까지 발 벗고 나서 만남을 주선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교회의 말처럼 청년부가 ‘떠나야 하는 곳’이라면 떠나지 않은 이들을 어디로 가야할까.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했을 때, 혹은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결혼을 하지 못했을 때 이들은 교회에서 갈 곳을 잃는다. 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에 여전히 ‘청년’이지만, 자신보다 20살도 어린 동생들과 함께 청년부 생활을 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색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거나 더러는 아예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 간혹 청년부 생활은 하지 않고 성가대 등의 다른 부서 활동에 집중하는 이들도 있으나 이 역시도 교회가 제시하는 새로운 대안이나 방향은 아니다.

구조적으로 갈 곳을 잃은 이들은 비단 비혼을 선택한 청년들만이 아니다. 자녀들을 매개로 교회 내 관계를 형성하고 적응하는 구조 속에서 아이가 없는 무자녀 부부들 역시 공동체 내에서의 위치가 애매해진다. 한 지인은 아이가 없는 자신들은 교회에서 ‘봉 떠있다’고 표현하며 교회의 구조가 얼마나 전편일률적인지 토로하기도 했다. 여기서는 비혼과 무자녀 부부의 예만 들었지만 실제로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 역시 ‘건강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나는 이러한 교회 구조적 ‘구멍’은 교회가 선택하는 ‘보편’의 언어가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교회와 선교단체가 ‘3말4조’나<sup>6)</sup> 25살 이후에 교제를 시작하라며 20대 초반의 연애는 제한하

---

6) 대학교 3학년 말에서 4학년 초가 연애를 시작하기 좋다는 선교 단체 은어.

고, 동시에 때가 되었다며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의 청년들을 위해 소개팅을 빙자한 연합 수련회를 열어 사랑의 오작교가 되는 모습<sup>7)</sup>을 보며 ‘보편’의 언어가 얼마나 통제적인지 깨닫는다. 나는 교회의 이런 적극성이 더 많은 이들을 구조적으로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휘되기를 바란다.

### 3. 교회와 비혼이 만날 수 없을까?

앞에서는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내가 왜 교회에서 비혼을 이야기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교회와 비혼은 영영 만날 수 없는 것일까? 비혼을 선택한 이들은 ‘생육하고 번식하라’는 말씀에 출산으로 화답할 수 없으니 교회와 사회에 쓸모없는 존재들인가? 나는 교회가 이러한 질문에 응답해야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교회가 결혼을 장려해야 한다.’는 태도로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할 수도, 함께 고민할 수도 없을 것이다.

내가 섬기고 있던 고등부의 한 학생이 “폴짝뿔이 제가 청년부 올라갈 때까지 계속 청년부에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이것을 옆에서 들은 한 집사님은 “그런 저주가 어디 있느냐. 얼른 청년부를 떠나기를 기도해야한다.”며 학생을 나무랐다. 하지만 비혼은 저주가 아니다. 비혼은 하나의 삶의 방식이자 선택이다. 그렇기에 선택의 이유나 삶의 모습 역시 하나로 정의할 수 없다. 결혼 한 이들의 삶의 모습이 모두 다른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교회에서 비혼은 납작하다. 비혼을 선택한 이가 왜 비혼을 선택했고,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지워진다. 그저 이상 행동으로 치부될 뿐이다.

내 주변에서 비혼을 선택한 이들을 보면 이유는 가지각색이다. 목사 안수를 준비하고 있는 여성은 결혼을 하는 순간 사모로 치환되어 자신의 사역을 펼쳐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비혼을 고민하고, 나처럼 기존의 정책과 제도에 동의할 수 없어 비혼을 선택하기도 한다. 또 누군가는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어찌다보니 때를 놓쳐서 비혼이 되어있기도 하고, 여성 억압적인 가부장제를 해체하기 위해 비혼을 선택하기도 한다. 실제로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31.8%의 청년들은 비혼을 결정했거나 결혼을 고민한다고 대답했다(비혼 결정-6.4%, 결혼 고민-25.4%). 그리고 이들은 “부모의 불행한 결혼생활을 되풀이하기 싫어서”(29.8%),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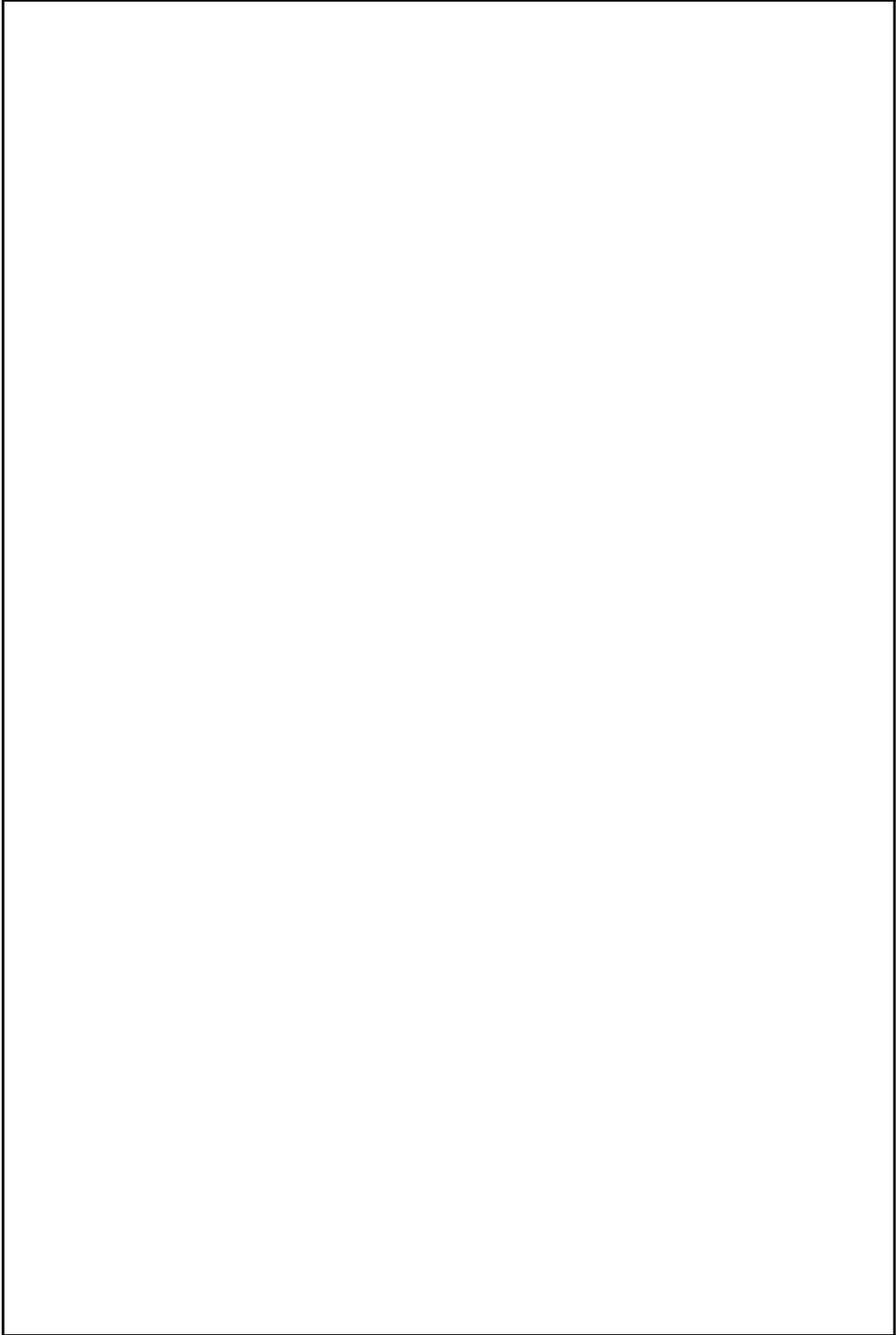
7) 장근지 (2018). 한국교회 내 여성평신도의 젠더수행성에 관한 연구 -주디스 버틀러의 이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서울.

재 생활에 만족해서”(25.4%), “넉넉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19.4%), “나와 맞는 배우자를 만나기 힘들어서”(7.5%), “육아 등 결혼 이후의 삶이 힘들어서”(7.5%), “집 마련 등 결혼준비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1.5%) 비혼을 선택했다고 응답했다.<sup>8)</sup>

나는 교회에서 더 다양한 비혼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응답 교회는 그럴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혼을 비혼으로 받아들이는 것,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허물어 가족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 나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자 교회가 비혼을 포함을 다양한 모습의 가족들에게 ‘안전한 곳’이 되는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교회가 포용하고 환대하는 성경적 원리로 이들을 대할 때 비로소 존재와 존재로의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할 것이다. 교회가 교회 되는, 비혼이 비혼 되는 그 날이 어서 오기를 바란다.

---

8) 국민일보, 2018. 기독교인 미혼남녀 10명 중 7명 “결혼할 거예요”  
크리스천 미혼남녀 비혼(非婚)에 대한 의식실태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54472&code=231111111&cp=nv>



##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민주화에 대한 열기가 절정을 이루던 1987년 12월, 손봉호, 김인수, 이만열, 장기려, 원호택, 이장규, 강영안 등 함께 성경공부를 하던 기독교인들이 뜻을 모아 시작한 **기독교시민운동**입니다.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전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과 신뢰받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기윤실은 지난 30년 간 좋은교사운동, 기독교법률가회, 공명선거운동,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놀이미디어교육센터, 크리스천라이프센터, 대한민국교육봉사단 등 **우리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울러, 기윤실은 네트워크운동으로 기독교윤리를 각 지역 현안에 맞게 전개하기 위해 지역기윤실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 2018년 기윤실 주요 운동

기윤실은 <정직>, <책임>, <정의>를 핵심가치로 합니다. 2018년에는 '약자를 위한 정의, 모두를 위한 공동선'을 표어로 정하여 ▲자발적불편운동, ▲교회신뢰운동, ▲좋은사회운동, ▲바른가치운동, ▲청년운동을 전개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를 세우고 '공동선'을 추구하며 한국교회와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약자와 함께하며 시대의 아픔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 후원안내

기윤실은 조직운영에 있어 더 깊은 투명성, 더 높은 책무성, 더 넓은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윤실 운동은 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개인·단체 회원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1999년부터 외부 공인회계감사를 통해 재무적 투명성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 후원문의 : 02-794-6200 (김현아 팀장)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37-01-0504-979 (예금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기윤실 홈페이지와 오른쪽 QR코드에 접속하여 직접 후원약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가입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401호(세대빌딩)

Tel: 02-794-6200 Fax: 02-790-8585 E-mail: [cemk@hanmail.net](mailto:cemk@hanmail.net) [www.cemk.org](http://www.cemk.org)